2019. 9. 23. (월) 언론보도

경인일보

2019년 09월 23일 (월)
종합 03면

전염병도 막지못한… DMZ평화·협력 '큰 울림'

생태가치등 조명 '…포럼' 성료

경기연 6개 세션 정책제안 봇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서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이어졌다.

도·경기연구원은 지난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9일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에도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6개 테마로 진행한 기획세션에선 의미있는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세션에서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DMZ에 (가칭)공동기억센터를 설치해 강제동원 문제 등 대일항쟁기 피해 실태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와 북측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대회 등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나임 무어스 '세와 생명의 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DMZ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도는 각 세션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도의 DMZ·평화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 정부와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 지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성기자 kangg@kyeongin.com

경인일보

2019년 09월 23일 (월)
종합 03면

이틀간 진행된 DMZ포럼 폐막 지난 20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판티 킴 푹(PHAN THI Kim Phuc) 여사, 로날드 애블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명예교수, 마르코 노이베르트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스테판 코스텔로 아시아이스트 대표,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DMZ 포럼 2019'를 마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일보

2019년 09월 23일 (월)
종합 03면

道 "DMZ 관리기구 설립·남북교류 사업 재개 적극 지원"

'2019 DMZ 포럼' 성료

국내외 저명 인사-석학 패널 토론·발제 진행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생태연구원 등 설치 제안
군사적 긴장 완화-평화상 제정 등 평화선언문 채택

DMZ 관련 저명인사와 석학들이 DMZ의 평화·생태·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DMZ 포럼을 계기로 관리기구 설립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DMZ 평화상 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지난 19~20일 킨텍스(고양)에서 '2019 DMZ 포럼'을 개최하고,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을 통해 [illegible] 논의했다. 6개 테마는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처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등으로 구성됐다. [illegible]

토론 참석자들은 DMZ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경기도 제공

[illegible]

기호일보

2019년 09월 23일 (월)
종합 03A면

지난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DMZ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DMZ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비무장지대 접경지 관리 민간 이양 등 목소리 다채

고양 킨텍스 DMZ 포럼… 6개 테마 11개 세션 성료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2019 DMZ 포럼'이 DMZ의 평화적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은 총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으로 진행됐다.

기획세션은 경기연구원이 기획·운영을 맡아 DMZ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 어젠다를 반영해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처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아치우드 북아일랜드 전 사회환경부 장관,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로버트 비베드 EU 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하이엔 송 홍콩폴리텍 대학교 교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기무라 칸 고베대학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인사가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남한 일방적 제안 개발사업
생태적 영향 우려 목소리도
北 공동프로젝트 진행 제안

'평화플랫폼' 세션에서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DMZ 등 접경지역 관리 책임의 민간 이양 등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 참여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개발사업들이 미칠 생태적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MZ 지역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해 생태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도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취합해 향후 도의 DMZ 및 평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0@kihoilbo.co.kr

인천일보

2019년 09월 23일 (월)
종합 03(경기판)면

'DMZ 포럼' 다양한 정책제언 쏟아져

경기도는 19일~20일 양일간 열린 '2019 DMZ 포럼'에서 한반도접경관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정책제언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평화플랫폼' 세션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관리청을 설치해 DMZ와 접경지역의 전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해 산림, 수자원, 전염병 등 현안 해결 협력체제 구축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DMZ 지역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해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세션에서 박세영 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DMZ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가능하고 움직이는 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교류 초기에는 추진이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정책제언들을 DMZ 및 평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행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